

# ‘블루 바이오 전남’ 주도 신규 R&D 확정

### 전남도·생물산업진흥원, 기획 과제 9건 발굴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면역제어시스템 개발 포함

전남도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30일 전남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획과제 최종 보고회를 열어 ‘블루 바이오 전남’을 주도할 9건의 바이오·의약 분야 신규 연구개발(R&D)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클러스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면역제어시스템 개발 ▲생물모사기반 청색기술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및 실용화 ▲바이오메디컬 산업 제품 안전성 확보 플랫폼 구축 ▲생물유래 표준(의약)물질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해조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해양생물자원 기반 미세먼지 유발 질환 예방·치료 소재 개발 ▲조류독감 면역 활성 곤충 및 가금류 마이크로바이옴 탐색 및 동정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미세

먼지 유래 섬유화 제어 소재 및 제품 개발 ▲우수 항기 생성 효모 확보를 통한 프리미엄 약주 개발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진흥원은 올 초부터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맞춰 유망 과제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선제적으로 R&D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발굴한 9건의 기획과제가 향후 국비 사업과 국가공모사업에 반영될 경우 전남도가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 바이오(Blue Bio)’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도와 진흥원이 바이오의약 분야 기획과제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육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종갑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과제별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 공모사업 및 2021년 신규 국비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전남형 첨단으로 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송년 주먹밥 오찬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낮 시청 구내식당에서 주먹밥을 배식한 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 광주시, 실국장·과장급 60명 전보인사

광주시는 30일 3·4급 실·국장, 과장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3급 국장급으로는 박향 문화체육관광실장이 문화체육관광실장 자리에서 옮기는 등 12명이 전보·유임됐다.

4급 과장급으로는 김요성 문화도시정책관, 이승철 세정담당관 등 48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유임됐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국·과장급 12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는 민선 7기 인사기 본원칙인 1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제한, 1

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희망인사시스템’에 기반해 본인 희망, 보직경로,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국을 신설,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고시출신 공무원교육원장을 전진 배치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여성가족과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여성가족과장이 법정대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달 13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30명 승진·전보

전남도 김경호 비서실장이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고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원장도 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 승진했다.

전남도는 30일 공로연수와 장기교육 훈련 등에 따른 실·국장급과 부·단체장, 준국장 30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전남의 핵심 정책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추진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번 승진 인사에선 김 비서실장과 박 동부지원장 외에 유현호 인구청년정책관, 김기홍 정책기획관 등도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또 정책기획관에는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공무원교육원장 지영배,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전남문화관광재단(파견) 주순선, 전라남도체육회(파견) 고재영 등을 각각 발령했다.

강영구 영광부군수가 준국장급인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변인은 김영신 농식품유통과장이 맡게 됐다. 인구청년정책관에 윤연화, 국제협력관 이상진, 기업도시담당관 김선호,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장영식, 도립도서관장에 박경근 등이 발령됐다.

부단체장으로는 여수부시장에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이 발령됐고 나주 부시장은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이 맡게 됐다. 보성부군수는 최병만 대변인, 곡성부군수는 오승규 혁신경제과장이 각각 발령났고 무안부군수에는 김희철 사회경제과장, 영광부군수는 홍성봉 사랑원예과장, 진도부군수에는 정현인 지역경제과장, 신안부군수는 박종열 해양환경과장이 맡는다.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갔던 주동식 이 사관은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전보 발령났다.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배연설비 의무 설치 전층으로 확대해 달라”

### 두암동 모텔화재 교훈 광주시, 법 개정 건의

광주시는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건축물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6층 이상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규정했는데, 전층으로 확대해달라는 게 건의의 골자다.

건축물 배연설비(배연창·배연구 등 연기 옥외 배출 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

들의 대피와 인명피해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광주시의 법령 개정 건의 배경에는 최근 두암동 모텔에서 일어난 화재가 있었다.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 두암동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화재 원인을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으로 조사한 결과, 배연설비가 적절하게 갖춰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광주시 판단이다.

법령개정 건의와 함께 자치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해당시설의 인·허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실·국장급 프로필

박향 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로부터 평판이 좋다. 문화예술계 목소리가 큰 광주에서 문화관광정책실장 재임 중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 의사(의학박사) 출신이다. ▲강진(54) ▲문화관광체육실장 ▲복지건강국장	술선수범하며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을 보여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평판이 좋다. 문화예술계 목소리가 큰 광주에서 문화관광정책실장 재임 중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 의사(의학박사) 출신이다. ▲강진(54) ▲문화관광체육실장 ▲복지건강국장	
김준영 문화체육관광실장 2호선 건설 찬반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데 공을 세웠다. 지방고시 7회 출신으로 대변인, 자치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쳐 조직과 시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평(51) ▲자치행정국장 ▲세종연구소 과장	교통건설국장 재임 당시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데 공을 세웠다. 지방고시 7회 출신으로 대변인, 자치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쳐 조직과 시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평(51) ▲자치행정국장 ▲세종연구소 과장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비서실장, 사회복지과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시정에 밝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흥(58) ▲문화도시정책관 ▲안전정책관	9급부터 시작해 3급 국장에 올랐다. 민선 6기 시장 비서실장, 사회복지과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시정에 밝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흥(58) ▲문화도시정책관 ▲안전정책관	
오영걸 정책기획관 다는 평가다.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평(50) ▲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지방고시 8회 출신으로 정책·기획·조정 업무에 밝다.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평(50) ▲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 전남도 실·국장급 프로필

김경호 농축산식품 국장 고로 조직 내에서 신임이 높다. 합리적 성품에 깔끔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까지 갖췄다. ▲순천(57) ▲화순부군수 ▲비서실장	공직자로서 끈은 자세와 두루 아우르는 유연한 사교로 조직 내에서 신임이 높다. 합리적 성품에 깔끔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까지 갖췄다. ▲순천(57) ▲화순부군수 ▲비서실장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산 관련 직무를 경험하며 노하우를 갖췄다.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의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 ▲광주(56) ▲만물고기연구소장 ▲동부지부장	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데다 다양한 수산 관련 직무를 경험하며 노하우를 갖췄다.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의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 ▲광주(56) ▲만물고기연구소장 ▲동부지부장	
지영배 공무원교육원장 있다. 어려운 업무도 끝까지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내며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완도(51)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업무 추진력, 판단력 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려운 업무도 끝까지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내며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완도(51)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유현호 세종연구소 교육 건축을 감안해 추진한다. 토론을 즐기고 이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조직 문화에도 힘쓰고 있다. ▲광양(50) ▲보성부군수 ▲인구청년정책관	고시 출신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직 내 여론을 감안해 추진한다. 토론을 즐기고 이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조직 문화에도 힘쓰고 있다. ▲광양(50) ▲보성부군수 ▲인구청년정책관	
김기홍 인재개발원 교육 및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에서 고루 신임을 받고 있다. ▲곡성(52) ▲고흥부군수 ▲정책기획관	고시 출신이며,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책에 대한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에서 고루 신임을 받고 있다. ▲곡성(52) ▲고흥부군수 ▲정책기획관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